

4. 主要 經濟 懸案

(1) 換率 1,000원 時代의 明과 暗 : 企業 經營 側面에서의 效果

- (긍정적 효과) 수출 단가의 하락에 따른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
- (부정적 효과) 그러나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제조원가 비용을 상승시키고, 환차손의 증가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고비용·저효율 구조를 보다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음
- (기업의 대응전략)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향상에 따른 호기를 최대한 살림과 동시에 구조조정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궁극적으로는 가격 경쟁에 의존하기 보다는 첨단 제품의 생산 등 비가격 경쟁력 향상에 주력해야 함

최근 원화 환율의 상승은 수출 단가 하락에 따른 수출 증대의 호기로 작용할 전망이다

- (긍정적 효과) 원/달러 환율의 상승은 수출 주도형 기업들에게 수출 단가(달러화 기준)를 하락시켜 줌. 이로 인해 일본 및 동남아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켜 수출을 증가시키는데 일조함
 - (수출 증대 효과의 극대화) 환율 상승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의 증가는 일본과 동남아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수출 증가의 호기로 작용할 것임
 - 궁극적으로는 환율 변동에 민감한 가격 경쟁력을 통한 저가 상품 수출이 아니라, 환율과는 전혀 상관 없는 비가격 경쟁력을 갖춘 첨단 제품의 수출이 주종을 이루어야 함
 - (구조조정의 호기)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확대 가능성은 최근 우리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유리한 작용을 할 전망이다
 - 구조조정 작업에는 장시간이 투입되며, 그 효과 또한 장기적으로 나타남
 - 최근의 환율 상승은 구조조정기의 경쟁력 약화를 보완해 주는 호기로 작용할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이 구조조정 노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- (부정적 효과) 원화 환율의 상승은 곧바로 수입 물

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기업의 제조 원가 비용을 상승시켜 고비용 구조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높음

한편으로는 가격 경쟁력에 바탕을 둔 수출 확대 전략과 다른 한편으로는 비가격 경쟁력에 바탕을 둔 기업의 구조조정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

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원가 상승 부담으로 이어짐

- (수입 물가의 상승) 원화 환율의 상승은 수입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짐. 특히 원유 수입 가격의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큼
- (제조 원가 상승) 석유화학, 정유, 펄프, 철광석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들의 경우 제품 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가격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짐
- (고비용·저효율 가중) 기업의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환율 상승에 따른 제조 원가의 상승은 기업들의 고비용·저효율 구조를 보다 고착화시킴에 따라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음
- (환차손의 증가) 해외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환율 상승으로 인해 환차손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금융비용 부담이 보다 가중될 것임

○ (기업의 대응전략) 수입 결제를 위한 통화를 달러화 보다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엔화, 마르크화 등으로 대체하며, 원재료의 수입선을 보다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음

- (수입 대체 효과 극대화) 원재료 수입 자체의 감소는 불가능하지만, 기술 개발을 통해 첨단 기술 제품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가능하므로 기술 개발을 통한 수입 대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
- (수입 결제 통화의 다변화) 또한 수입 결제 대금을 달러화로 결제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엔화, 마르크화 등으로 다변화시킴
- (수출 증대 및 구조조정의 양면 전략 수행) 한편으로는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향상에 바탕을 둔 수출 증가 전략과 궁극적으로는 환율과 관계 없는 비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근 진행 중인 기업의 구조조정 작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함

(천 일 영)